

# 명예의 전당 모실 모범 시민 찾습니다

## 나눔·기부·자원봉사 활동

10월 2일까지 시민·단체 추천

심사 선발...12월 시청 현역식

광주시가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 현역 후보자 공모에 나선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 현역 후보자 및 단체를 추천 받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명예의 전당은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및 단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는 시청 1층에 현역 공

간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98년부터 효사랑 나눔의 샴터를 설립하고 도시락·김장김치 등 나눔활동을 해온 김영춘씨가 현역되는 영예를 안았다.

앞서 2021년에는 2006년부터 구두수선비의 10%를 모아 어려운 이웃과 나눠 온 김주술씨와 하루 100원을 모아 이웃을 돕는 100원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온 김희만씨,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20년간 반찬나눔 등 실천한 문순자씨,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 등을 이어온 자비산행회 등 4명(단체 포함)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명예의 전당 현역 후보자 추천권자는 해당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시민, 단체, 소관 부서장 또는 구청장이다. 일반 시민 추천은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19세 이상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가능하다.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추천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2층. 자치행정과) 또는 이메일(ksb569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받은 현역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검증, 공적확인, 사회공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명예의 전당 현역식은 12월 중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062-613-3361)로 문의하면 된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 공동체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시민이 명예의 전당에 현역해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는 귀감으로 삼겠다"면서 "지역을 빛낸 훌륭한 분들이 현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 협약

### 신한은행·페이컴스와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함께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클린페이'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돕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이번 클린페이 도입을 통해 대금지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ESG 경영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6명 공개채용

### 8월31일~9월4일 접수

광주시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7급(지방환경주사보) 2명과 8급(지방환경서기) 4명이다.

자격요건으로 7급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8급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하여야 한다.

응시자의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은 없다. 응

시 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작성해 접수기간 내에 광주시 인사정책실 인재채용팀(062-613-6282)을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최종 합격자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정수사업소에서 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정수장 시설물 관리, 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우리시공무원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광주시 9월 1~15일 접수

자금 지원·세무조사 유예

광주시는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내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상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50명의 기업인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평가를 비롯한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1%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0%),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대중교통 이용 선포식.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등 임직원들은 최근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광주' 구현을 목표로 '대중교통 이용 선포식'을 갖고 모든 직원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 광주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 9~12월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

광주시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배움트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배우고 싶은 것을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도성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1년 '미래 청소년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공공 프로젝트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반기 과정은 대학연계형과 전문가연계형, 자율기획형 등 3개 유형 8개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대학연계형은 전남대학교 전공 학과와 연계해 신문방송, 건축기획, 조정실습, 사람책 콘텐츠 등 4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전문가연계형은 독립

출판 작가·제로웨이스트 활동가·역사동아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단편소설창작 환경캠페인, 역사 콘텐츠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율기획형은 직접 팀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맛대로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모든 과정은 9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1회 방과 후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고등학생 또래 청소년(17~19세)으로, 재학생은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이력이 기재된다.

참여 희망자는 29일까지 온라인(bit.ly/2023청주프로젝트)으로 사전신청을 한 뒤 재학생은 소속 학교 담당교사에게, 이 외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자 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2-224-0541) 또는 카카오톡 채널(2023하반기청주프로)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10년 연속 경영 우수기관

### 행안부 평가...지방 공기업 최초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10년 연속 경영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7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안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공기업 최초로 10년 연속 경영 우수기관을 유지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새 정부의 경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구조개혁 등 혁신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이번 평가에서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코로나19 이전 승객 수송 회복에 노력한 점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사업 발굴에 나선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시철도공사는 특히 국가 R&D사업 등 기술 융역사업 수주, 경비 절감 총량목표제 운영,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 안정적 재무 구조를 실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밖에도 동종기관 최장 20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 청렴도 3년 연속 우수등급,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토부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유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에 오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절대 안전과 혁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동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